

주간 전남 농업

VOL. 235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5월 넷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수경재배, 배지 특성에 맞춘 영양 공급이 중요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계통평가회 성황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제11회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확정
해외 농업정보 일본, 쌀밥을 대신하는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대체 식재료 인기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3 ~ 17도, 최고기온 : 23 ~ 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 ~ 6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토마토 출하 및 가격전망
- ▶ 방울토마토(대추형) 출하 및 가격전망
- ▶ 딸기 출하 및 가격전망
- ▶ 오이(취청) 출하 및 가격전망
- ▶ 애호박 출하 및 가격전망
- ▶ 풋고추 출하 및 가격전망
- ▶ 참외 출하 및 가격전망
- ▶ 수박 출하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5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9

- ▶ 농촌진흥청, ‘멀강나방’ 피해 주의 당부
- ▶ 수경재배, 배지 특성에 맞춘 영양 공급이 중요
- ▶ 가뭄에 약한 밭작물, 씨 뿌린 후 물 관리 중요
- ▶ 인공광 스마트온실내 방풍 재배를 위한 수경 배양액 이용방법 및 효과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5

- ▶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계통평가회 성황
- ▶ 전남농기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품질관리 기술지원 나서
- ▶ 전남농기원 정현주 연구사, 한국원예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 농촌진흥청, 배추에서 바이오매스 높이는 유전자 발굴
- ▶ 농촌진흥청, 개발도상국 벼 기술 역량 강화에 앞장
- ▶ ‘오감만족, 건강한 밀·보리 이야기’
- ▶ 친환경농산물 유통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다
- ▶ 전남창조센터, 나주서 농수축산식품 품평회
- ▶ 소 모기 매개질병 감염률 조사
- ▶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안간힘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5

- ▶ 순천시, 제11회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확정
- ▶ 나주시, 로컬푸드 체험투어 성황 ...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성화 도모
- ▶ 담양군, 조사료 품질검사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 곡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국민 홍보
- ▶ 곡성군, 멜론 2019년 첫 출하
- ▶ 곡성군, 장미 보러 왔다가 토란파이 맛에 반해
- ▶ 화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 기울여
- ▶ 진도군, 도시민 귀농학교에 수도권 참가자 몰려
- ▶ 해남군, “변화하는 과일 소비” 신소득 과수 육성
- ▶ 함평군, 생대추 육성 현장순회교육 실시

7. 해외 농업정보 46

- ▶ 일본, 쌀밥을 대신하는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대체 식재료 인기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8.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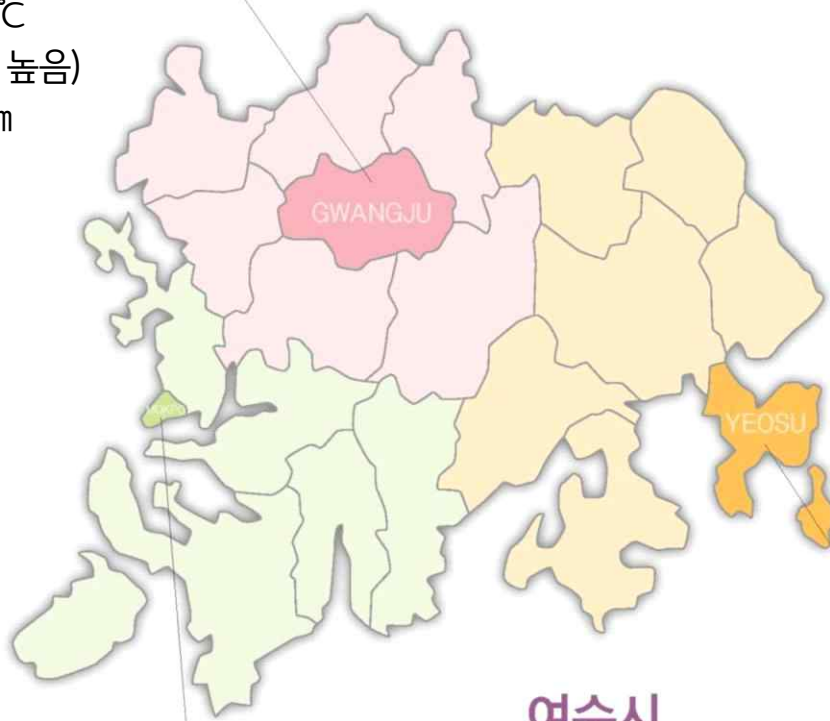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 우수식품정보시스템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0.9℃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6.3℃
(평년대비 0.2℃ 낮음)
- 최저기온 : 15.6℃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3.2mm



목포시

- 평균기온 : 19.4℃
(평년대비 0.1℃ 높음)
- 최고기온 : 23.0℃
(평년대비 1.4℃ 낮음)
- 최저기온 : 15.9℃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3.1mm

여수시

- 평균기온 : 19.8℃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3.1℃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16.4℃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4.5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마토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지역은 시설면적이 확대된데다, 지난해 고온 피해로 재정식된 면적의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충청지역은 병해충 발생률이 전년보다 적어 작황이 양호한 반면, 강원지역은 4월 밤기온 하락으로 과 비대와 숙기가 늦어지면서 생육이 더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보합세 전망

- 5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전년(8,100원) 대비 보합세인 상품 5kg 상자에 8천 원 내외로 전망된다.
- 5월 상순에는 출하량이 적어 전년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중순 이후 강원지역에서 출하가 본격화되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다만, 일반토마토 품질이 양호하고, 소비대체 품목(수박, 참외 등)의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울토마토(대추형)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지역은 신규 면적이 증가된 반면, 경기지역은 오이, 호박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면적은 충청·호남지역에서 신규 시설면적 증가와 최근 시세 상승으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보험세 전망

- 5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나, 소비대체재인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9,300원) 대비 보험세인 상품 3kg 상자에 8천~ 1만 원으로 전망된다.



딸기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증가할 전망이다.
- 신규 재배면적이 늘어난데다, 작황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였던 전년과 달리 금년에는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남지역 일부 토경재배 농가의 경우 가격 약세로 출하 종료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5월 단수는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호남지역은 곰팡이병 발생 등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약보합세 전망

- 5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3,900원) 대비 약보합세인 상품 2kg 상자에 1만 2천~1만 4천 원으로 전망된다.



오이(취청)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5월 취청오이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구례에서는 바이러스 영향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한 농가가 증가하였고, 경기 여주에서는 가지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에도 출하 비중이 큰 호남과 충청지역의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을 전망이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만 4,700원)보다 낮은 상품 50개에 1만 6천~1만 8천 원으로 전망된다.



애호박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2% 증가 전망

- 5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단수는 작황이 좋아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4월 하순 내린 비로 5월 상순까지는 수확량이 적겠으나, 이후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수확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5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에도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많을 전망이다.
- 6월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지속된 가격 약세 등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6,700원) 보다 낮은 상품 20개에 9천~1만 2천 원으로 전망된다.



풋고추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3% 감소 전망

- 5월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일반풋고추 가격이 낮아 홍고추로 전환하여 출하하려는 농가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5월 단수는 겨울철 가격 약세로 인한 농가의 관리 소홀로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 따라서 5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면적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남 지역에서 3월에 정식한 농가가 증가하였고, 강원지역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약보합세 전망

- 5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나, 소비 대체재인 오이맛고추의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3만 6,000원) 대비 약보합세인 상품 10kg 상자에 3만 2천~3만 6천 원으로 전망된다.



참외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2% 감소 전망

- 4월 참외 출하면적은 농가 고령화 및 타 작목 전환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 5월 단수는 기상 호조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은 3월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생육이 지연되었으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호조로 5월에는 작황이 양호하였다.
- 5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2%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순별 출하 비중은 상순 28%, 중순 40%, 하순 32%로 중순 출하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하순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된 물량이 중순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6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5월 참외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만 1,700원) 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2천~3만 5천원으로 전망된다.
- 5월 상순에는 중·하순 대비 반입량 감소로 4만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수박 출하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5월 출하량 전년보다 1% 감소 전망

- 5월 수박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경북 고령에서 양파, 마늘 등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2% 감소할 전망이다.
- 반면, 충청지역의 경우 전년 냉해 피해로 정식시기를 늦춰 전년보다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호남지역의 경우 파종기 수박 가격 강세로 정식면적이 늘어 출하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 5월 단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 지역의 경우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적어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주 출하지인 영남지역은 기상여건 호조로 과 비대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5월 출하량은 단수가 증가하나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5월 수박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080원)보다 높은 상품 1kg에 2,100~2,400원으로 전망된다.
- 순별 도매가격은 상·중순에는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보다 높겠으나, 하순에는 충청과 호남지역의 출하가 원활해지면서 상·중순 대비 하락세가 예상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5. 27.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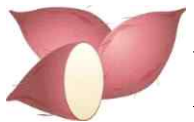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4,580	39,533	↑ 24.4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196,200	194,200	↑ 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3,450	180,650	154,767	↑ 26.8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35,200	37,400	↓ 2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350	44,150	29,640	↑ 18.8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44,800	47,000	↓ 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850	49,350	44,677	↑ 0.3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4,100	-	↓ 2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5,250	6,283	↓ 34.7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8kg	6,300	6,900	↑ 1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00	5,475	5,930	↑ 6.2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0개	30,333	24,000	↓ 4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417	54,750	25,644	↑ 18.3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개	12,000	9,200	↓ 5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00	25,350	11,027	↑ 8.8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60kg	1,147,200	1,147,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47,200	1,150,000	723,333	↑ 58.6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42,600	47,000	↑ 5.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400	40,350	43,030	↓ 1.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125,000	135,000	↓ 1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45,000	145,000	↓ 13.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11,600	11,800	↓ 1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00	14,200	14,333	↓ 19.1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0kg	32,000	32,200	↓ 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200	34,700	32,453	↓ 1.4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kg	1,540	1,580	↓ 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45	1,590	1,743	↓ 11.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5kg	15,800	17,400	↓ 1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550	19,500	19,633	↓ 19.5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개	17,600	18,600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400	18,100	16,333	↑ 7.8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16,800	17,800	↓ 16.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3,200	20,050	20,577	↓ 18.4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5kg	17,000	16,600	↓ 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250	17,550	16,767	↑ 1.4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40,400	40,800	↑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700	37,750	41,433	↓ 2.5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5kg	53,400	53,400	↑ 4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00	36,450	43,643	↑ 22.4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kg	-	31,2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050	-	30,80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0g	8,022	7,984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48	8,115	7,196	↑ 11.5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kg	5,263	5,392	↑ 1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07	4,719	5,499	↓ 4.3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30kg	499,200	499,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950	498,000	524,667	↓ 4.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kg	11,600	12,600	↓ 15.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	13,800	12,717	↓ 8.8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2kg	7,000	7,2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800	7,800	8,033	↓ 12.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00g	2,012	2,015	↑ 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97	1,873	2,093	↓ 3.9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30개	5,140	5,137	↑ 2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45	4,285	5,822	↓ 11.7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27)	1주일전 (5/20)	전년대비	
1L	2,617	2,618	↑	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2	2,520	2,541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5. 27. 기준 / 단위: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486	5,447	5,655	↑ 0.7	↓ 3.0
거세	7,072	7,015	7,041	↑ 0.8	↑ 0.4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55	3,264	3,248	↓ 0.3	↑ 0.2
수	4,058	4,028	4,047	↑ 0.7	↑ 0.3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60	3,394	3,5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9	↓ 10.2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47	437	29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3	↑ 53.6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3	387	40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	↓ 6.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20	1,240	1,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7	↓ 4.4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67	925	75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3	↑ 14.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1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농촌진흥청, ‘멸강나방’ 피해 주의 당부

- 올봄 평균키온 높아 애벌레 발생 늘어...발견 즉시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철 고온으로 벼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 발생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어서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다.
- 멸강나방은 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먼저 날아든다. 지난해에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가장 많이 발견됐다.
- 올해 3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서해안 일대에 성페로몬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했더니 멸강나방 어른벌레(성충)는 지난해 대비 5.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멸강나방 애벌레는 벼나 옥수수, 수수류, 목초 등 벼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데, 식욕이 왕성해 피해 규모가 크다.
- 올해 5월과 6월은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적고 평균 기온이 높다는 예측에 따라 애벌레 수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 멸강나방은 알에서 깬 지 10일이 지나면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발견 즉시 방제해야 한다.
-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발생 여부를 살피고, 논밭이나 목초지를 자주 관찰해 애벌레가 보이는 즉시 약제를 뿌려준다.
- 약제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바람이 없는 시간에 줄기와 잎에 골고루 뿌린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수경재배, 배지 특성에 맞춘 영양 공급이 중요

- 코이어 배지, 입자 비율따라 공급 방법 · 횟수 조절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코넛 열매 껍질을 가공한 코이어 배지에 수경재배 시 정밀한 영양액(양액) 조절 방법을 제시했다.
- 토마토수경재배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땅 위의 환경은 물론, 뿌리가 자라는 배지에 양분과 수분의 보유 특성을 고려해 영양액을 공급함으로써 배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 최근 코이어 배지 이용이 늘고 있지만, 배지 크기나 조성에 관한 규격과 영양 공급 방법 등은 정해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수경재배는 양분을 넣고 일부를 배출(배액)하는 방식으로, 배지 특성과 크기에 따라 알맞게 영양액을 공급해야 한다. 배지가 수분과 양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코이어 배지 (칩 100%)



▲ 코이어 배지 (더스트 100%)



▲ 칩 50%, 더스트 50% 혼합배지

● 배지 특성

- 칩(입자가 큰 재료)의 비율이 높은 배지는 물 빠짐이 좋고, 더스트(입자가 작은 재료)의 비율이 높으면 수분이 잘 유지된다. 즉, 같은 양을 주더라도 칩이 많으면 영양액을 조금씩 자주, 더스트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한 번에 넉넉한 양을 가끔씩 주면 된다.

- 배지 크기

-크기가 작은 배지보다 큰 배지의 1회 영양액을 많이 공급해야 양분과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칩 비율이 70%, 50%, 30%일 때, 배지 폭과 깊이가 15×7.5cm로 작다면 1회 영양액을 각각 33, 66, 99mL 정도 공급한다. 또한, 배지 크기가 20×10cm로 큰 경우에는 66, 99, 132mL 정도 공급해야 한다.

- 아울러, 유기물인 코이어 배지는 양분 보유력이 높아 뿌리 부분의 염류농도(EC)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남은 양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 실험 결과, 영양액 배출 비율이 20% 이하에서는 뿌리 부분의 염류농도가 크게 상승했고, 40% 이상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영양액 배출 비율을 20~30% 정도로 하되, 배출된 영양액의 염류농도가 높다면 영양액 1회 공급량을 10~20% 가량 늘린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강진 소장은 "최근에는 수경재배 시 한 번에 적은 양을 자주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뿌리의 염류 농도가 높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수량이 줄 수 있으므로 배지 특성을 고려해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가뭄에 약한 밭작물, 씨 뿌린 후 물 관리 중요

- 토양 수분 상태, 초기엔 25~30% 싹 틈 후 20~25%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뭄에 약한 밭작물은 씨를 뿌린 뒤 토양의 수분 상태 유지가 중요하다고며 철저한 물 관리를 당부했다.
- 콩과 팥 등 두류작물은 가뭄에 약하다. 이들은 토양의 수분 상태가 수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심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 지난해 폭염으로 가뭄 피해를 입은 밭작물 면적은 1만 8400ha 이다. 이로 인해 콩 생산량은 10a당 예년 대비 5.8% 줄었다.
- 노지 밭작물은 씨를 뿌린 후 토양 수분 상태가 발아율을 좌우한다.
- 연구 결과, 토양 수분이 25~30%이면 물대기를 하지 않은 때보다 2) 발아율이 36~43% 높았다. 토양 수분이 30%이면 싹 트는 날도 15%일 때보다 1.7일 빨랐다.
-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표점적,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등으로 관리하면 물을 공급하지 않은 때보다 생산성이 콩은 최대 35.2%, 참깨는 41.6%, 수수 26.1% 높았다.
- 토양의 수분 상태는 간이판별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 이 방법에 따르면 흙을 손바닥에 조금 올려놓고 쥐었을 때, 물이 약간 느껴지며 부스러지지 않는다. 흙에 지문이 남을 정도이면 알맞은 상태로 판단한다.
- 싹이 올라온 뒤에는 20~25%의 수분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인공광 스마트온실내 방풍 재배를 위한 수경 배양액 이용방법 및 효과

- 인공광 스마트온실이란 -

- 외부의 기후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식물의 생육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s, Light-Emitting Diodes)와 같은 인공광원을 사용하여 규격과 품질이 균일한 작물을 주년·안정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를 말하며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수경재배란 -

- 수경재배란 토양을 사용하는 대신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양액 속에 뿌리를 담구어 식물을 재배하는 것
- 수경재배는 물과 양분을 따로 주지 않고 양분이 첨가된 배양액으로 식물을 재배한다고 하여 양액재배, 무토양재배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 배양액 조절 방법 -

- 인공광 스마트온실에서 엽채류 수경재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본원시액, 야마자키 상추액 또는 야마자키 파드득액을 사용하여 방풍을 수경재배 할 수 있음
- 방풍 수경재배를 위해 개발된 배양액은 아직 없으나, 기존의 엽채류 재배시설을 사용하여 방풍 전용 배양액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수경배양액을 EC 1.5 및 pH 5.8~6.0으로 조절하여 재배하면 장기간 방풍 잎을 수확할 수 있음

- 기타 재배환경 조절 방법 -

- 형광등을 광원으로 하여 일평균 광조사시간은 12시간, 주간 온도와 상대습도는 21~23℃ 및 50~60%로 조절하고 담액식(일정높이의 배양액에 뿌리를 담가 재배하는 방식)이나 박막식(베드에 완만한 경사를 주어 수로모양으로 배양액을 흘러 보내는 방식) 등, 기존 재배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배
- 인공광원의 광강도는 재배면에서 30 cm 정도 간격을 둔 상태에서 광원과 재배면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광강도를 100~150 $\mu\text{mol m}^{-2} \text{S}^{-1}$ 로 하며, 형광등 이외에 적색과 청색의 발광다이오드를 혼합하여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엽채류 전용 배양액 사용 효과 -

- 인공광 스마트온실이 엽채류 전용 재배시설일 경우 별도의 전용시설이나 배양액 탱크 및 전용 배양액 등이 없어도 관행의 엽채류 재배용 배양액을 사용하여 방풍을 수경재배할 수 있음
- 수경배양액 종류별 방풍의 평균 엽수확량은 일본원시액이나 야마자키 파드득액 처리에서 7% 증가함
- 엽내 단백질 함량은 야마자키 파드득액에서 12% 증가하고 섬유질이나 총 식이섬유는 야마자키 상추액에서 13% 정도 증가함
- 방풍의 생체중이나 건물중은 각 배양액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공광 스마트온실에서 엽채류 재배에 사용하는 관행의 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료제공: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허정욱 063-238-4063
- 자료편집: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육성 수국 신품종 계통평가회 성황

- 수국 신품종 재배농가 등 각 분야 전문가 호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수국 신품종 육성을 위한 우량 계통 평가회를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개최하고 재배 농업인과 종묘업체에 온실을 25일까지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 수국 우량 계통 평가회는 수국 65종에 대하여 객관적 선호도 평가를 위해 재배온실 내 생육과 개화특성을 평가하였고 절화수명과 화색발현 등 수출과 유통을 위한 절화 특성 평가로 구성되었다.
- 이날 평가회에는 종묘업체, 플로리스트, 유통업체 등 화훼 전문가를 비롯하여 도내 재배농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이번 평가회에서 선호도가 높은 계통은 우선적으로 증식하여 올해부터 도내 재배농가 현장에서 재배하여 품종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발된 계통을 품종보호출원을 통해 재산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소장은 “수국은 전남의 대표 수출 화훼품목으로 신품종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품목으로 우수한 품종이 재배농가에 보급되어 로열티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품질관리 기술지원 나서

- 도내 유용미생물 품질 경쟁력 확보에 앞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에 대한 미생물 품질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번 기술지원은 생산된 유용미생물의 최고 품질을 유지하고 최적의 안전성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은 20개소로 주당 1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초균 등 11종의 미생물을 축산(39%), 원예(40%), 기타(21%)의 순으로 공급하고 있다.
- 유용미생물은 농업환경 기반의 변화나 친환경농업, 악취저감 등 안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품질관리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농업인의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농업기술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급증하는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배양시설 운용과 맞춤형 미생물 생산 기술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정현주 연구사, 한국원예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석류 신품종 개발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정현주 연구사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예학회 110차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고 24일 밝혔다.
- 우수 논문상은 매년 한국원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흰색 석류에서 안토시아닌 합성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전좌의 확인과 과피색 판별 분자마커 개발’이다.
- 이번 논문을 통해 석류의 과피색이 흰색으로 발현되는 원인을 구명하였고, 조기에 적색 석류와 흰색 석류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하여 석류 육종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 기법을 활용하면 교배된 석류 종자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최소 5~6년이 소요되는데 어린 묘목 상태에서 열매의 색을 확인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현재 정현주 연구사는 과수연구소 육종재배팀에서 석류 신품종 육성 연구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의 단석류인 적색 과피의 ‘단미홍’을 육성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 정 연구사는 “이번 논문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난지과수 신품종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전남 과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배추에서 바이오매스 높이는 유전자 발굴

- 식물 성장과 발달 영향...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배추에서 작물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벽 완화 유전자(expansin superfamily)를 동정·분류하고, 그 중 바이오매스를 높이는 유전자를 발굴해 기능을 밝혔다.
- 바이오매스(Biomass)는 화학적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즉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를 뜻한다.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한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같은 바이오매스 연구가 진행 중이나 배추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연구 결과, 배추에는 53개의 세포벽 완화 유전자가 존재하며, 이 중 expansin-like B1(BrEXLB1) 유전자가 식물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유전자와 식물 바이오매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애기장대를 대상으로 기능을 검정한 결과, BrEXLB1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된 애기장대는 일반 애기장대 보다 꽃봉오리와 곶투리, 잎이 25% 커졌으며, 식물체 생체량도 1.5배 이상 더 자랐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여윤수 생물소재공학과장은 "이번 연구로 확보한 기술은 작물의 바이오매스 증진 등 식물체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개발도상국 벼 기술 역량 강화에 앞장

- 21일~23일, 필리핀서 국제미작연구소와 벼 훈련 평가 워크숍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벼 기술 이전 체계 훈련'의 성과 평가를 위한 워크숍(공동 연수)을 연다.
- 이 자리에는 교육생 27명이 참가해 훈련 기간 동안 배운 기술을 본국에 적용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훈련의 성과는 정부 혁신의 하나인 사회적 가치 부여를 위해 평가 전문기관에서 맡는다.
- 평가 결과는 농촌진흥청의 벼 국제훈련 프로그램 개선에 적용된다. 또한, 우수 사례는 참가국의 인적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2002년 시작된 벼 기술이전체계 훈련은 농촌진흥청의 성공적인 통일벼 개발과 보급, 국제미작연구소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공동 훈련이다.
-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에서 299명의 훈련생이 참가했다.
-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국제훈련을 통해 농촌진흥청만의 앞선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식량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촌진흥청



‘오감만족, 건강한 밀·보리 이야기’

- 20일~26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서 밀·보리 특별전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오감만족, 건강한 밀·보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관(전북혁신도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특별전시회를 연다.
- 밀과 보리 식물체와 종자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 밀과 보리로 만든 빵, 쿠키, 라면 등 가공식품을 맛보는 행사도 열린다.
-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없앤 밀 '오프리'와 색깔 밀·보리, 새싹보리 등 밀과 보리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새싹화분과 보리피리, 맷돌 밀가루 만들기, 밀짚 공예 체험을 비롯해 밀과 보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태일 밀연구팀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밀, 보리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소비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밀과 보리 소비량은 연간 248만 톤(2017)에 달하나 국내 생산량은 11만 톤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우리 밀과 보리는 겨울과 봄에 주로 재배하는데, 병해충이 적고 생산부터 소비지까지 이동 거리가 짧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산물 유통 블록체인 기술 적용한다

- 전남도, 과기정통부 공모 선정...학교급식온라인 판매 등에 활용기로 -

-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디지털전환’ 공모에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되고 있다.
- 전라남도는 지난 6개월간 사전 연구용역을 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소비과정의 다양한 이력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유통플랫폼’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 사업은 이 모델을 실제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에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에서 생산해 학교급식과 전라남도 온라인 마켓을 통해 거래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관리와 실시간 이력 추적이 가능해져, 전남산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된다.
- 또한 유통 과정에서 매번 제출발급되는 친환경인증 서류, 시험성적서, 검사검수서 등 수많은 종이서류의 전자적 확인기록이 가능해 종이증명서 발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처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창조센터, 나주시 농수축산식품 품평회

- 중소벤처기업 70개사 200여 우수 상품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23일 나주호텔에서 전남 농수축산식품 중소벤처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우수상품 품평상담회’를 개최했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파트너 기업인 GS계열사(GS리테일GS홈쇼핑), 농협하나로유통과 함께 한화갤러리아, 농협경제지주, NS홈쇼핑, 우체국쇼핑, Y-MART 등 국내 유통사별 상품기획자(MD)와 해외바이어, 전문무역상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수축산 중소벤처기업 70개사의 200여 우수상품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해 1대1 밀착 품평 컨설팅을 지원했다.
- 특히 광주전남KOTRA지원단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으로 초청된 10개국 해외바이어 24명이 수출 구매 컨설팅과 해외 진출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참여기업에 제공해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줬다. 10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파라과이, 인도, 독일이다.
- 또한 기술보증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의 금융·기술세무 전문가가 참석해 기업 경영 전반에 필요한 조언을 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진행, 참여 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 행사에서 1차로 선정된 우수 상품은 각 유통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현장점검 및 세부평가를 거친 후, 최종 입점 대상 업체로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향후 유통사와 입점을 연계해줌으로써 국내외 판로 확대와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소 모기 매개질병 감염률 조사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발생 동향 분석해 방역대책에 반영기로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모기가 본격 출현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소 모기 매개 바이러스질병 5종을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
- 검사는 8농가를 선정해 농가별 5마리씩 총 40마리에 대해 이뤄진다. 올해 처음 여름을 보내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소가 대상이다. 모기 출현 전후인 6월과 11월, 2회 검사해 항체 양성률 변화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토대로 질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소 사육농가에 방역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은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 총 5종이다. 기립 불능기형 송아지 출산, 유사산 등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발병 시 효과적 치료법이 없어 백신접종과 모기 구제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 정지영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모기매개성 질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기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접종을 끝내고,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와 저독성 살충제 살포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안간힘

- 도축장사료공장 소독 등 방역 일제점검...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추진 -

-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되고 있어 도축장사료공장 소독 등 방역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 소돼지 도축장 12곳, 닭오리 도축장 8곳(휴업 2곳 제외)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20팀)을 구성해 28일까지 도축장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내외부 소독, 도축장 진출입로와 주변지역 분뇨 등 잔존물 제거, 가축 수송차량 세척소독,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사용 및 유효기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특히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부터 모든 돼지농가에 울타리둘레로 생석회를 일제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추진한다. 생석회는 매월 1회 일제 살포 예정이며, 도 행정지원관(22명) 등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34건, 몽골 11건, 베트남 2천332건, 캄보디아 7건 등이 발생했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무섭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제11회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개최 확정

- 7월 18일 ~ 19일 양일간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

-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7월 18일 ~ 19일까지 이틀간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1회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는 매년 농업인 정보화에 앞장선 시군을 선정해 개최하는 행사로 순천시는 농업 정보화를 통한 혁신 농업인과 경영체 육성 선도도시로 인정받아 올해 개최지로 확정됐다.
- 이번 행사는 ‘5G 시대, 정보화 기술로 스마트 농업경영 실현’을 주제로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장 최정일) 협조로 순천시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장 박승호)와 순천시가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농업인들은 최신 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영농 현장에 활용해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프로그램으로 1인 미디어시대 정보화 기술 습득을 위한 특강, 개회식, 아고라 공연, 우수사례 발표, 각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될 예정이다.
- 순천시 농업정책과 유희성 과장은 “순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전남정보화농업인 육성과 5G 시대, 앞선 정보화 기술 습득으로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순천시



나주시 로컬푸드 체험투어 성황 ...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성화 도모

- 11일 로컬푸드 소비자회원 및 가족 35명 참여

노안 이슬촌, 나주시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1일(토)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투어를 로컬푸드 소비자회원 및 가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로컬푸드 체험투어는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 증진 및 로컬푸드 소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 1회(총 7회) 운영된다.
-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체험투어는 노안면 이슬촌마을과 나주시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이날 오전 체험단은 Non-GMO,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산란계 농장을 방문, 농가로부터 직접 사육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장에서 생산한 유정란을 활용한 짬 풀 꾸러미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 빗가람동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그동안 단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했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 느낀 점이 많다.”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려는 생산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출처 : 나주시



담양군, 조사료 품질검사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오는 6월까지 조사료 품질검사 조사료생산경영체와 희망농가 대상 실시 -

-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료 품질검사를 오는 20일부터 내달까지 추진한다.
- 조사료 품질검사 사업대상은 23개 경영체, 1,150ha이며 조사료생산경영체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조사료와 TMR(섬유질배합사료) 이용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소비용은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 조사료 품질검사 경영체 및 희망농가는 조사료 500g을 3cm 가량 세절한 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봉투에 밀봉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품질검사는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 수분함량, 상대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해 조사료의 품질을 평가하며, 품질검사 결과는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자료로 활용된다.
-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사료 경영체의 인식부족과 기상여건 등으로 수분함량이 많고 품질이 고르지 못한 조사료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사료 수확 후 충분히 말리고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담양군



곡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국민 홍보

- 곡성세계장미축제 한돈 시식회장에서 예방 홍보캠페인 펼쳐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1일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 한돈시식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백신 및 치료제가 없고, 폐사율이 최고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최근 아시아 4개국(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에서 꾸준히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캠페인에는 유근기 군수, 김선호 부군수, 이화섭 한돈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찾은 축산관계자 및 축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 등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시 한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외 여행 시 돼지고가와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멜론 2019년 첫 출하

- 당도 높고 식감 우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 각광 -

-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의 대표적 소득 작목인 곡성멜론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 20일 오전 10시 곡성읍 대평리 소재 멜론 공동선별장(APC)에서 2019년 곡성멜론 출하식을 개최했다. 첫 출하의 영광은 곡성읍 대평리 빙○○ 씨 농가의 멜론이 차지했다.
- 곡성멜론은 섬진강의 맑고 깨끗한 환경과 일교차가 큰 기후특성,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 농가들의 정성이 더해져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다.
- ‘기차타고 멜론마을’이라는 브랜드로 2015년에는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세계농업기술상 수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최근 ‘곡성’이라는 지역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상승세를 틔워 따라 곡성멜론도 전국 대형 백화점 납품망과 해외 수출망 구축하며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
-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10일 간 펼쳐지고 있는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곡성멜론 우수성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페이스페인팅, 풍선공예, 곡성멜론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이 ‘곡성’이라는 지명과 ‘멜론’이라는 과일을 서로 연관짓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장미 보러 왔다가 토란파이 맛에 반해

- 곡성토란이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9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장미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고 있다.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특산물인 토란을 홍보하고자 장미축제장에서 토란화분과 토란파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예상보다 높은 인기에 매일 물량 확보에 진땀을 쏟고 있다.
- 전국 생산량 7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은 토란국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의 재료로 활용 가능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토란파이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관과 섭취가 편리해 간편한 건강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다.
- 곡성 토란파이는 평소 세트상품으로 구성되어 판매되는데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는 토란파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날개 상품도 판매한다. 토란파이 가공업체인 곡성다움 최영숙 대표는 “곡성 토란파이는 특유의 쫄득함과 달콤함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축제 기간 동안 토란파이를 알릴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 한편 곡성군은 3곳의 가공업체(가랑드, 곡성다움, 자매가)에 기술이전 하는 것을 토란파이 기술 이전시작으로 토란파이를 특허 출원하는 등 토란파이를 지역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곡성군



화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총력 기울여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생기는 악성가축전염병(제1종법정전염병)으로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 발생 국가의 돼지 축산물 반입과 양돈 농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도 발생하고 있다.
- 화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관내 양돈 농가를 관리하는 ‘전담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양돈 농가를 상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 또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공급하는 농가에 사료를 먹이로 전환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다. 주요 도로, 밀집 사육 단지 등에 현수막을 내붙여 해외여행을 하면서 축산 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할 때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밀집 사육 지역이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민감하다”며 “군 소유의 축산 차량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양돈 농가의 출입구, 밀집 사육 단지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6월부터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가 1차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출처 : 화순군



진도군, 도시민 귀농학교에 수도권 참가자 몰려

-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형 교육 진행 ‘호평’

예비 귀농귀촌인 80명 6박7일간 교육받고 체험도 -

- 귀농·귀촌 지역으로 진도군이 주목받고 있다.
- 22일 진도군은 지난 20일(월)부터 26일(월)까지 6박7일 동안 예비 귀농·귀촌인 8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학교인 ‘수도권 예비 귀농인, 농산업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주)그루터기마루, (주)한국정책미디어 등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창업 교육은 귀농·귀촌 정책 설명, 마케팅·유통 전략, 현장 체험,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으로 접수 때부터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신청자가 몰렸다.
- 특히 진도군의 차별화된 정책인 영농 현장 실습 멘토링제, 창업 지원, 주택 수리비·영농 자재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과 농특산물 가공 현장 견학, 간담회 등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예비 귀농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교육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농 정착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한편 예비 귀농·귀촌인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별 창업농 귀농 성공 사례 등의 교육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 현재 진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도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매년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인 4,070명이며, 농림수산물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5억여 원을 지원 받고 있다.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도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여성, 청년 등 분야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진도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해남군, “변화하는 과일 소비” 신소득 과수 육성

- 사과대추 등 소비자 선호 과일 시범사업 실시 -

- 해남군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신소득 과수 육성에 나서고 있다.
- 군은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사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과대추, 플럼코트, 체리, 샤인머스켓 등 신소득 과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사과대추는 대추 특유의 향과 사과의 아삭한 식감을 가진 과일로 옥천면에 0.2ha 면적의 과원을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계곡면에 0.4ha 면적의 플럼코트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올해 신소득 과수 시범사업은 전체 1ha 면적에 실시되며,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량묘목과 방풍시설, 관배수 시설 등을 지원한 계획이다.
- 군은 시범사업을 확대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소형과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보급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깍아서 먹는 번거로움이 없는 과일을 선호하는 등 최근 농산물 소비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함평군, 생대추 육성 현장순회교육 실시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24일까지 생대추 집중 육성을 위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단호박, 무화과, 부추, 쑥, 고사리 등 5대 특화작목을 잇는 신(新) 소득작목으로 ‘생대추’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왔다.
- 1시군 1특화작목 선정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20만㎡ 규모의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생대추 재배기술을 포함한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먼저 큰 대추 생산을 위한 대추 신초관리, 키를 낮춘 저수고 재배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손자르기, 가지 유인 요령 등도 병행 교육한다.
- 특히 이번 교육기간이 대추의 개화 및 착과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 관리법, PLS(농약잔류허용물질) 강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요령, 토양 관리요령 등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지도로 고품질 대추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



일본, 쌀밥을 대신하는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대체 식재료 인기

- 일본 니테레뉴스24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쌀밥 대신 콜리플라워 위에 카레를 얹기도 하고, 양배추 위에 소고기 덮밥 구를 올리는 등 이색 조합 메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카레 체인점 코코이치방야는 쌀밥 대신 잘게 썬 콜리플라워에 카레를 얹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 당질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카레라이스의 쌀밥 양을 30g로 낮추고, 그 대신 콜리플라워를 120g로 추가했다.
- 소고기덮밥 체인 요시노야에서는 창업 120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 지향 덮밥을 발매했다.
- 소고기, 닭고기, 브로콜리 등 재료 밑에 깔린 것은 밥이 아닌 채를 썬 양배추다. 탄수화물, 당질을 신경 쓰는 고객이 증가해, 밥을 뺀 소고기 덮밥 샐러드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 롯데리아는 5월부터 약 2개월간 고기패티를 대신해 대두를 사용한 소이패티를 넣은 소이 야채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다.
- 소이패티를 판매하게 된 데에는 소비자의 건강지향과 인바운드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

		
Co Co de 오프 카레A	라이잡 소고기 샐러드	소이 채소 버거

- 일본은 건강과 외국인 여행객 수요로 쌀밥을 대신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을 외식메뉴에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 한국의 묵이나 해초류 등 칼로리는 낮지만, 식감 등이 뛰어난 식재료를 일본 외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간다면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2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환매수(short-covering)와 기술 매수로 4% 이상 급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4.1%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비로 인한 겨울 농작물 피해와 봄철 밀 파종 중단에 대한 우려 속에 금요일 환매수(short-covering)와 기술 매수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카고 거래소 7월 연질적색 겨울 밀 WN9는 부셸 당 4.50-4.89달러로 19.00-19.25센트 더 높은 가격에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7%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물에 잠긴 들판과 미국 중서부 전역에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카고 거래소 7월 옥수수 CN9는 부셸 당 4.04-4.25달러로 14.0-14.5센트 오른 가격에 마감했는데, 이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출 지원으로 상승했고, 비로 인해 지연된 미국의 파종은 올 시즌 미국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카고 거래소 7월 대두 SN9는 부셸 당 8.29-8.75센트로 마감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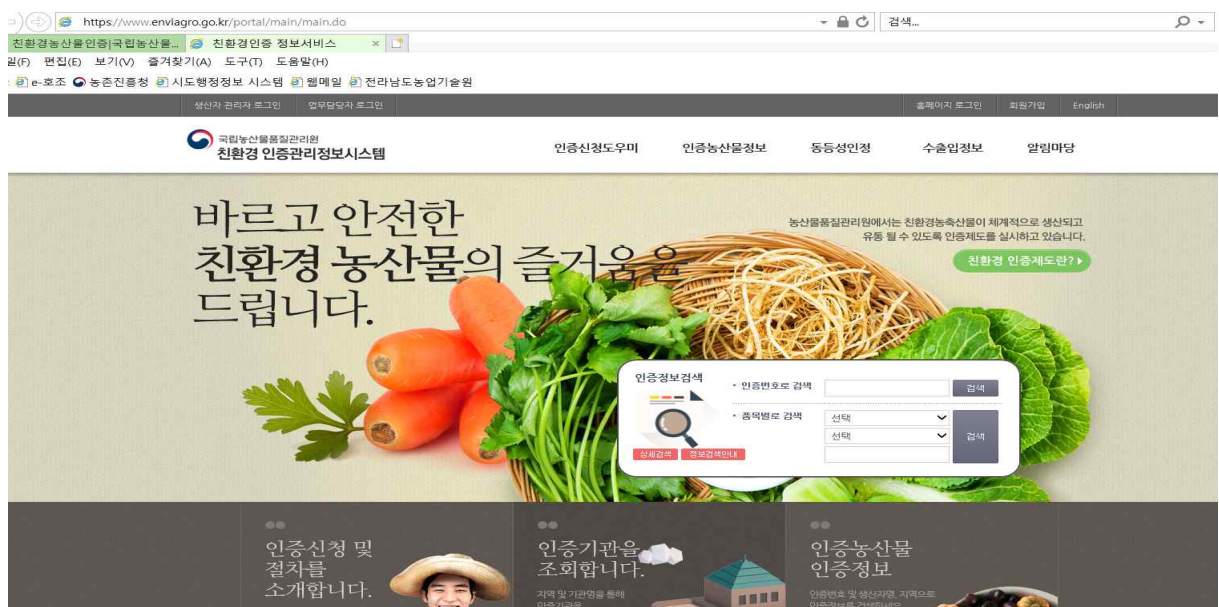
8

농식품 빅데이터(인증제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서는 인증신청도우미, 인증농산물정보, 동등성인정, 수출입정보, 알림마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인증신청도우미에서는 인증신청안내, 인증기관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 인증농산물정보에서는 인증표시소개, 인증정보, 직거래, 부정유통신고, 친환경인증통계,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정보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일괄검색 가능
 - 직거래는 기본검색, 상세검색 가능
 - 친환경인증통계는 조회구분, 업무구분, 기간, 시/도, 인증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가능





우수식품정보시스템

- 농사에 필요한 인증제도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서는 우수식품인증제도, 우수식품인증기관지정제도, 인증정보보회, 정보광장, 온라인기술지원/상담, 민원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우수식품인증제도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및 작도법
 -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에서는 인증제도 개요,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품목, 평가사항, 인증심사수수료, 사후관리절차, 인증표지
- 인증정보조회에서는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조회, 전통식품품질 인증조회, 민간인증기관 지정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청렴전문가 팀 그린나래

청렴 4대 요소 4컷만화

청렴의 수행력



우리가 모두 공정하고
청렴해질 때 세상은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35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